

Nepali to Jesus

2021년 2월



[학사관 저녁 모임]



[성경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견과 어비]



[수레쓰 전도사 부부와
성경 공부]

네팔 선교 동역자님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학사관 사역

이곳 학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학사관 사역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졸업하고 돌아간 학생들의 빈자리도 모두 채워졌습니다. 새로 온 다섯 명의 학생들 모두 수도 카트만두에서 3~4시간 거리의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왔습니다.



[학사관의 주일 예배]

코비드로 인한 모임 규제가 해제되면서 아침 큐티와 저녁 모임을 재개 하였습니다. 대학생 모임을 따로 만들었고 캠퍼스 전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

선교사와 네팔 목회자들이 주관하는 '성경과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6주간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견과 어비 그리고 밀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서밋은 이전에 교육 받아 스텝으로 섬겼고, 비살은 학교 시험 때문에 중도 하차 하였습니다.

- 기도 제목

1. 학사관 사역이 방해 받지 않도록
2. 대학생 캠퍼스 전도 및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3. 벽돌 공장 마을과 변장 마을에 공부방 사역 환경이 열려지도록



[간식 시간 - 밝은 모습의 양들]

<< 처치 플랜팅 사역

마베 교회에서는 네팔어 교실을 열어 니믈라 사모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픈하지 않았고, 우선 글을 모르는 교인들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팔어 교실-우측에서 세 번째가 니믈라 사모, 책이 없는 분들은 구경하러 오신 마을주민들]

마베 마을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빈자리가 생겨 니믈라 사모가 지원 하였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합니다.

교회 개척 후보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을들을 정탐 해오던 중 최근에 두 곳을 선정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공부방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교사를 고용하여 학생들의 학교 공부를 도와주어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는 한편 학부모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달 초에 선교사 2가정의 비자가 취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 주의를 기울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변과 함께 학사관과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

카트만두에서 제임스 & 글로리아 정 드림